

중요한 것은 땀감이 아니다

윤홍길 <땀감>

이승우
소설가

산감(山監)이라는 말을 아는지. 산림감시원의 약칭인 산감은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가장 무서운 이름 가운데 하나였다. 호랑이나 꽃감보다 훨씬 무서웠다. 호랑이는 전설 속에나 있었고 꽃감은 이름만 알고 있었지만, 산감은 내 현실 가운데 가장 구체적인 실체로 있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우리는 나무꾼이었다. 여름엔 풀을 베고, 겨울엔 갈퀴질을 했다. 그러나 온 산을 다 헤집고 다녀도 지계를 다 채우기가 어려웠다. 그도 그럴 것이 마을의 모든 가구가 야트막한 뒷산에서 땀감을 조달했던 것이다. 겨울이 되면 사정은 더욱 나빠졌다. 땀감은 더 많이 필요한데 갈퀴질을 할 낙엽은 일찌감치 떨어져버리기 때문이다.

그럴 때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소나무 가지를 낮으로 쳐내고 싶을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것은 금지된 일이었다. 산감에게 들키는 날에는 나뭇가지는 물론 지계까지 빼앗긴 채 지서로 끌려가는 등 곤욕을 치른다고 했다. 실제로 그런 장면을 눈 앞에서 목격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산감이다!"하고 누군가 소리치르면 빈 지계만 어깨에 걸고 부리나케 도망부터 치고 보았다.

윤홍길의 단편 <땀감>을 읽다가 내 유년을 지배했던 그 익숙하고 무서운 이름 '산감'을 발견했을 때 나는 은근히 반가워서 슬그머니 미소를 지었다. 세 장으로 되어 있는 이 소설은 '솔에다 풀일 게 없는 것도 문체려니와 구들장을 데울 수 없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였던 시절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했을 땀감 마련에 얽힌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양민증 문제'로 직업을 갖지 못해 기죽어 지내는 한 가정이 아들과 함께 땀감을 구하기 위해 한밤중에 산에 들어간 이야기가 맨 앞에 나온다. 서툰 아버지는 나무토막 부러지는 소리가 온 마을을 흔들어 깨우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마찬가지로 어리숙한 아들도 산감이 코앞에 다가와서 전지불을 비출 때까지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다. 그런데 산감의 무자비한 몰아세움 앞에서 아버지는 뜻밖에 당당하고 의연하게



윤홍길씨.

대처한다. "네 이 노움"하고 호통을 치기도 한다. 그러다가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고 둘이서 이야기하자고 산감을 타이르고, 산감은 아들을 돌려보내는 아버지를 묵인한다.

아들이 빠진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다만 아버지가 나뭇가지를 한 짐 짊어지고 의기양양해서 돌아오는 장면을 보여줄 뿐이다. 아버지는 "그 버르장머리 없는 산감녀석 혼내 주는 것 너도 봤지야?"하고 묻고,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이야기하라고 은근히 종용한다.

가난 속에서도 가정의 권위를 놓지 않으려는 눈물겨운 아버지의 모습은 감동스럽다. 그것이 비록 허풍일지라도 이름답다. 환경이 어렵더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된 마땅한 권위를 잃어 버리지는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받는다. 소중한 것은 땀감이 아니라 '땀감이 떨어지는 날이면 내 몸뚱이를 태워서라도 나이들을 따숨게 맵글 작정'이라고 말하는 우리 아버지들의 정신인 까닭이다.

바람이 사납게 부는 밤, 산길을 걸어내려오는 아버지는 자기 등 뒤에 바짝 붙으라고 아들에게 말한다. 바람은 아버지와 의 거리를 자꾸만 떨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바람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가족)은 더욱 바짝 붙어서 걷는다. ❖

"씻은 몸처럼 마음도 깨끗해야 하니라"

김원일 <깨끗한 몸>

조경란
소설가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제 위기에, 폭설과 연일 이어지는 한파가 단단히 한몫하고 있는 즈음이다. 개인의 일상마저 위태로워지고, 또 모든 상황이 곧 뿌리가 뽑혀 나갈 것처럼 흔들리고 있다. 부딪치는 얼굴마다 얼핏 그들이 드리워져 보이는 것은 단지 나의 우울한 투사(投射)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어디서고 위안 받기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그들은 무얼하며 견딜 수 있을까. 짧은 소설 한편을 읽어본다.

누구에게나 그럴 때가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일천구백칠십년대쯤? 그때가 나의 유년시절이었다. 왜곡된 기억 탓일까. 그때 역시 너나 할 것 없이 어렵고 힘든 시절이었다고 여겨진다. 특히 철모르고 뒤흔던 우리들에게 밥상을 차려 주시던 가난한 부모님들이 그러했을 것이다.

거리에는 늙은 상이군인들과 초췌한 모습으로 헤매던 실직자들, 그리고 병거지를 눌러쓴 거지들을 늘상 볼 수 있었다. 더욱이 한겨울 추위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맵차고 혹독했으리라.

그때, 그 시절, 설 명절을 앞둔, 꼭 이맘 때였다. 우리들은 요령부득인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동네에 하나밖에 없는 공중 목욕탕으로 끌려갔다. 왜 하필이면 설을 앞둔 때라야 했는지, 그때는 짐작할 훈수가 없다. 목욕탕으로 끌려갈 때는 흡사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가 이런 심정이라'란 생각까지 들 정도였던 생생한 기억, 설을 앞둔 목욕탕 실내는 북새통을 이루고 있게 마련이었다. 게다가 <깨끗한 몸>의 화자인 길남은 초등학교 육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등을 떠밀려 여탕으로 들어가게 된다. 길남의 모친처럼,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은 자식들 몸을 씻기는 행위에 어찌면 일종의 경이나 신성함마저 느끼는지도 모르겠다. "양쪽 팔이 모두 끝나면 머리, 목, 겨드랑이, 가슴, 등, 엉덩이, 허벅지, 다리로 차례에 따라 때를 밀었다. 그런데 때밀이를 할 때 어머니의 표정이나 그 힘쓰는 정성은 마치 불구대천 원수를 만나 피를 말리는 싸움을 방불케 하였다. 아니면 살갗의 얼룩점까지 지워내겠다는 가증스런 모질음이었다."

어머니 손길에 의해 벗겨진 건 단지 수젓구멍에 걸린 국수가락처럼 굵고 시커먼



김원일씨.

때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랬다. 단지 어머니들의 지나친 청결벽 때문만은 아니었다. 길남을 비롯한 대부분의 우리들은 그렇게 성장했다. 곤혹스런 목욕을 끝내고 어머니와 손잡고 목욕탕을 나올 때 '청노루마냥 바람을 가르며 어디로든 내닫고' 싶을 정도로 개운하던 느낌, 그것은 어머니의 선물이었다.

그때 목욕탕을 나오며, 나의 모친께서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

"씻은 몸처럼 마음도 깨끗해야 하니라. 깨끗한 마음으로... 뒷날 우리 식구가 이 고생하고 살았을 때를 웃으며 이야기할라카모 니가 우째하며 살아야 되는 줄을 알고 있지?"라고 말이다. ❖

가난한 '곡예단장' 들에게 격려를

황순원 <곡에서>

이희중

문학평론가·전주대 국어교육과 교수

지금 우리는 낯설게도 전반적 경제 여건의 후퇴를 경험하고 있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 못마땅한 구석이 없지 않았지만, 쉽사리 잘 사는 나라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가. 너무 서두른다고 긴요한 물건을 못 챙겼던 모양이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그 물건을 가져와야 한다. 처음이 어디쯤인가. 더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가깝게는 1950년의 전쟁 무렵이리라. 이 참극은 겨레의 삶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물질적 재산도 파괴되고 사람에 대한 믿음이나 동족의 유대 같은 정신적 재산도 허물어졌다. 그 모진 상황을 어른들은 어떻게 견디셨던가.

황순원이 1951년 5월에 쓴 자전적 단편 <곡에서>에는 피난지의 험한 인심에 시달리며 가족의 안위에 노심초사하는 가장(家長)의 안쓰러운 모습이 있다. 대구와 부산을 전전하며 그의 여섯 식구는 삶의 가장 낮은 곳을 경험한다. 아내는 입던 옷을 팔러 시장으로 가고 아이들은 미군들에게 담배와 껌을 판다. 가장은 피난 온 학교에 나가지만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다.

이런 물질적 압박보다 더 가장을 괴롭히는 것은 야박한 인심이다. 고통을 나누기는커녕 이를 틈타 이득을 챙기며 불쌍한 이들을 억박지르는 사람들이 있다. 공교롭게도 여섯 식구는 두 도시에서 변호사네 방을 빌렸는데, 주인의 마음씀이 어디나 한결같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위선과 물욕으로 그들을 거리로 내모는 자들. 가없는 자들에게 비인간적인 조건을 붙여 방을 빌려주거나, 코고는 식모를 혼자 재우기 위해 두 가족 열 식구가 자는 방을 비우라 한다. 아버지하고 교활한 위인들은 어려운 시절에 더 날뛴다. 지금도 그렇다.

이 단편의 끝장면은 오래 기억에 남아 있다. 노래를 부르며 밤길을 걷는 아이들과 부모, 한 아이는 아버지의 무릎을 타고 있다. 조만간 주인이 전기까지 끊은 어두운 방에 당도할 텐데. 그때 가장은 생각한다. "오라, 지금 나는 진아를 어깨에 올려놓고 곡예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진아도 내 어깨 위에서 곡예를 하고 있고,



황순원씨.

선이는 나비의 곡예를 했다. 남이는 자전거 곡예를 했다. (...) 이렇게 해서 이들은 황순원 곡예단의 어린 피에로요, 나는 이들의 단장인 것이다." 아아, 모든 어려운 시대를 사는 가장들은 곡예단의 단장이다. 이 곡예에 힘입어 대(代)는 이어지고 겨레는 험한 시대를 훌쩍 뛰어넘는다. 그래서 우리의 단장은 다시 생각한다.

"나는 너희가 이후에 오늘의 이 곡예를 돌이켜보고, 슬퍼해 할는지 웃음으로 돌려 버릴는지 어쩔는지 그건 모른다. 따라서 너희도 이날의 너희 엄마 아빠가 너희들의 곡예를 보고 웃었는지 울었는지 어쩔는지를 몰라도 좋은 것이다. 그저 원컨대 나의 어린 피에로들이여, 너희가 이후에 각각 자기의 곡예단을 가지게 될 적에는 모조록 너희들의 어린 피에로들과 더불어 이런 무대와 곡예를 되풀이하지 말기를 바란다."

아마 우리의 가장은 울었나 보다. 그의 간구도 헛되이, 지금 다시 먹고사는 일이 곡예가 되는 시절이 왔다. 가진 자들이 너그러워지기를, 가난한 우리의 가장들이 힘을 내기를! ❖

보이지 않는 것의 '울림'

김승욱 <서울, 1964년 겨울>

하성란

소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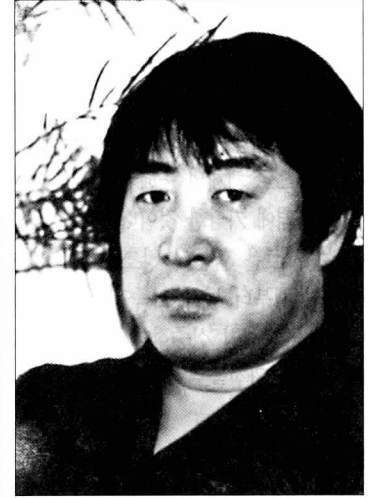
산수가 아닌 수학이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제일 난감했던 것은 마이너스 숫자들의 등장이었다. 보이는 것만 헤아릴 줄 알았던 나에게, 보이지 않는 숫자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은 충격이었다. 헤아릴 수 없는 것, 아무 것도 없는 것은 모두 다 싸잡아 0이라고 생각했던 나에게 아직까지도 숫자란 무언가를 헤아리는 데만 필요한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이후로 나는 수학에 흥미를 잃어버렸다. <서울, 1964년 겨울>에는 내가 없었고 그래서 마이너스 숫자처럼 막막해야 할 텐데 시골에서 상경해서 어색하게 미니스커트를 입고 커다란 쇠가위로 재단을 하고 있는 젊은 내 어머니의 얼굴 위로 내 얼굴이 겹쳐지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다.

이 작품은 1964년 겨울, 서울의 매서운 바람을 피해 선술집 안으로 모여든 세 남자, 한때 육군사관학교 시험에서 떨어진 나, 도수 높은 안경을 쓴 안이라는 대학원생, 정체를 알 수 없지만 요컨대 가난뱅이라는 것만은 분명하여 그의 정체를 꼭 알고 싶다는 생각은 조금도 나지 않는 서른 대여섯살짜리 사내가 4천원이라는 돈을 쓰는 하룻밤 해프닝을 그리고 있다. 그 돈 4천원은 사내가 대학병원 실습용으로 아내의 시체를 팔고 얻은 돈이다.

나와 안의 진지함을 가장한 대화들은 마치 아라비안나이트의 어느 구절을 읽고 있는 것처럼 흥미진진하지만 서로의 공감은 없는 대화다.

"중국집에서 거리로 나왔을 때는 우리는 모두 취해 있었고, 돈은 천 원이 없어졌고 사내는 한쪽 눈으로는 울고 다른 눈으로는 웃고 있었고, 안은 도망갈 궁리를 하기에다 지쳐버렸다고 내게 말하고 있었고, 나는 "액센트 짙은 문제를 모두 틀려버렸단 말야. 액센트 말야."라고 중얼거리고."

아내의 시체를 판 돈으로 중국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세 사람의 묘사는 1964년 그 겨울의 삭막한 풍경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들은 모두 땅에 발을 딛지 못하고 갈 곳 없이 유언비어처럼 떠도는 인물들이다. 이 해프닝은 사내의 자살과 그것을 방기하고 도망친 후 나와 안이 자신들이 여전히 스물다섯살짜리임을 확인하고



김승욱씨.

헤어지는 것으로 끝이 난다.

나는 이 작품이 실린 자선집만 해도 여러 권 가지고 있다. 간혹 이 글의 제목을 패러디한 작품들이 눈에 띄고 나 또한 내 속에서 나온 구절이라 생각하고 쓴 것이 나중에 이 작품 속에 들어 있는 구절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당황한 적이 있는 것을 보면 거의 모든 문학청년들의 필독서가 분명한 모양이다. 이 작품의 표면에는 울씨년스러운 1964년의 겨울과 개인주의의 부도덕, 젊다는 것조차도 확신하지 못하고 언 땅 위에서 발을 구르는 인물들이 그려져 있다. 그러나 이 글이 1964년의 겨울에서 훌연히 삼십여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1998년 겨울 서울 한 귀퉁이로 옮겨올 수 있는 글의 이면, 보이지 않는 것, 그 울림에 나는 여전히 이 글을 읽고 또 읽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의 위력이다. ❖